

큰스님 수행한담

내게는 공부가 됩니다



1948년 해인총림 대종스님들이 장경각 앞에서 하한거 기념촬영을 했다. 주창자들 큰 인곡스님(들째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효봉스님, 왼쪽이 구산스님. 오른쪽은 구산스님 아래에 앉아 있다.

포광(金包光)스님을 만나 능엄주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한 때 <일연성인유문집(日蓮聖人遺文集)>을 탐독하고 일연스님의 <법화경> 공산유포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으나, 일본의 법화경관(法華經觀)이 사방벽에 종생의 구원보다는 너무나 자기 나라에 관중하는 사상임을 깨닫고 조사(祖師)를 넘어선 석가세존의 근본불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면서 여러가지 불법에 대한 의문을 스님을 통해 해결했고, 당시의 사랑을 흠뻑 받았습니. 스님은 '나를 은사로 알고 살라'는 고마운 배려까지 하였고, 스님의 문하로 입실(入室)하라는 말씀도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는 인양암의 은사를 두고 다시 은사를 정하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그저 스님 가까이서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것 만으로도 즐겁습니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당시 해인사에는 청담스님 인곡스님 구산스님 등이 주석하고 계셨는데, 인곡스님은 근대의 도인으로 자비보살, 선지식으로 사부대중에게 추앙받고 있었습니

믿음의 공덕 회향해야 합니다 세계평화위해 또 이웃위해 모두 한마음되면 불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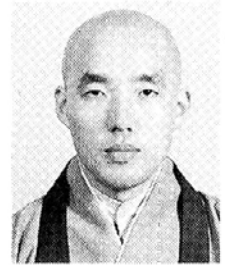
있었어요. "아이, 우둔스님. 그래, 자네는 3년간이나 <초발심자경문>을 배웠으니 어디 우리 앞에서 배운 걸 좀 말해 보게나." 누군가 '우둔스님'에게 놀림조로 그렇게 말하자, 우둔스님은 주저하다가 멋지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둔스님은 더러는 조용하고 더러는 힘있게 강의를 해 나갔는데 끝이 없었어요. 한번 놀려보자던 대중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그 스님은 '초심(初心)'이란 두 글자를 주는데 한 마디 어긋남이 없이 꼬박 한 시간을 강론하는 게 아닙니까. 3년간 우둔하게 들여다 본 <초발심자경문>에서 문리(文理)가 터져 버린 겁니다. 대저 공부란 한 곳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면 그 자리를 통해 열을 알고 백을 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 해인사에서 수도를 한 뒤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곳 발길 닿는대로 만행길에 올랐습니. 이곳 저곳을 거치는 도중 남원 실상사와 무주암 등에서 <법화삼부경>을 독송하고, 지리산 법계사에서 법화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젊은 할기에 목숨을 걸

이르렀습니. 즉 '나무평등대해 실상묘법연화경'(南無平等大覺 實相妙法蓮華經)의 창념(唱念) 만다라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독송하던 <법화삼부경>과 진·수(陳·隨)나라 국사인 천태지자(天台智者) 대사의 법화삼대부(法華三大部)인 문구(文句) 현의(玄義) 마하지관(摩訶止觀)을 불철주야 독송하고 교리를 연구하게 되었지요. 이로부터 법화만다라 창념과 <법화삼부경>독송을 가혹하리 만치 맹열한 기도로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법화삼부경>은 중·장년기를 통해 5천여절을 독송한 것 같습니다. 해인사를 6. 25직전에 떠나온 나는 고향 장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장성군 월평리 묘정사에 임시 도량을 열고, 이곳에서 <법화삼부경>을 매일 모시고 1일1식 장좌불와(長坐不臥)의 난행(難行) 고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도 가성하리만치 무서운 공부였습니다. 공부중에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일불국토(一佛土)에 관한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한 원자탄의 무력화와 남북무혈 평화통일, 세계사상의 합일화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혁한 이래 일어난 각종 전쟁, 특히 6. 25 동족상잔에 대해 피아를 막론하고 희생된 영가를 위해 <법화삼부경>독송의 공덕을 법계로 회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으름으로 만들어 그동안의 피안박에서 벗어나 세계일동국을 만들려는 나름의 노력이었지요. 묘정사에서 장성을 서삼면 취암리 백련동 묘현사에서 수행처를 옮긴 후에도 법회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인 것처럼 똑같은 불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아본립서원 욕령일체종 여아등무이(我本立誓願 欲令一切衆 汝我等無異)'라는 <법화경>방관품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국삼보와 세계평화 일불국토'는 지나가나 일관된 열원이었습니다. 지방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이 한 식구가 되어 이구동성으로 '실상묘법연화경'을 봉창하게 되는 날 사바세계는 육종진동(六種震動)하고 법화천지만일색(法華天地滿一色)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나의 경전

반야이취경



혜능 피계사 영산율원

<반야이취경>은 <이취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반야부계통의 대표적인 밀교경전이다. 한역으로는 여러 가지 이역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공 삼장이 번역한 <대라금강불공진심마야경 반야바라밀다이취경>이다.

내가 <이취경>을 만난 것은 학부 때였다. 어느 밀교학개론서에서 <이취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좌도밀 교적인 측면과 부각시켜 해석하고 있었다. 분명히 근본취지는 이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밀교학에 관심을 갖게 했고, 급기야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일본 교야산 진언밀교 총본산에 가서 밀교학을 수학하게 되었다. 만다라의 세계는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오직 엄격한 수행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고 다가갈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이다. 그런데 교야산에

삼마야계란 보리심계(菩提心戒)라고도 하는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즉 대지(大智)와 대비(大悲)와 삼마지(三摩地)의 세가지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보리심을 일으켜 이것을 원리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발심하여 먼길을 가는 데에 발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불도에 나아가는 데에도 계가 없으면 어찌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한 교와 밀교의 두가지 계를 굳게 수지하여 끝까지 청정히 하여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듯이 진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修法)은 계율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밀교의 수행은 닦는 이의 심신이 청정하지 않으면 결코 최고의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없다. 진리의 세계를 체험하고 들어가는 데에 계율을 지키는 생활은 가장 기본이고 필수 요건이 된다는 것은 밀교든

대라의 세계 절대공정 논리로 전개 밀교교리 응축...좌도적 해석 편견

서 나를 만다라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 비밀의 곳을 열어 준것이 바로 <이취경>이었다. 선사들이 남겨 놓은 명쾌한 주석과 훌륭한 아사리(스승)의 안내로 <이취경>에는 밀교교리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고, 또한 이 점이 밀교의 이상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이취경>의 좌도적 해석은 지말적인 편해이고 사건이며 오히려 <이취경>은 존재의 참모습과 참가치를 찾아 거기에 살도록 하는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명의 찬가임을 깨닫게 되었다. 교야산에서 수학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위대한 생명의 찬가를 노래 부르기 위해서는 비구의 생명인 계율을 더욱 철저한 기초와 확립이 있어야했다 싶어 해인사 율원 과정을 마쳤다. 그후 피계사 영산율원에서 율학연찬을 계속하면서 <이취경강해>본을 번역하였다. 앞으로도 계율의 입장에서 <이취경>을 연구하고 싶다.

흔히 밀교에서는 아예 계율이 없거나 전혀 무시되고, 나아가 좌도적인 모습들이 전부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밀교에서도 계율은 생명과 같은 것이니 흔히 밀교 계율의 특징을 삼마야계(三摩耶戒)라고 한다.

선불교든 정토든 어디에도 예외가 없음을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취경>의 세계는 추상과 구상, 마음과 물질, 타(他)와 자(自), 자연과 인간 등을 일체의 이원적인 대립과 구별을 '대라(大樂)와 불공(不空)'의 체득으로 극복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반야사상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제3기의 반야사상인 '유공불이(有空不二)=불공(不空)'의 세계에 해당된다. 7~8세기에 성립한 <이취경>에는 대라와 불공의 세계를 일반 반야경전과 같이 공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밀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가치의 실현을 꾀하는 절대공정의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고, 거기에서 얻는 것은 결국 '본래 청정한 인간성'의 확신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17단의 각단 속에 제각기 만다라가 있는데, 명상속에서 이들 만다라를 관상해 나간다. 그들 만다라를 관함에 따라 <이취경>의 각단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중생계와 부처의 세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불가사의한 경계가 전개되어 있고, 훌륭한 밀교적 세계의 신비가 무한히 감추어져 있다.

“공부란 한 곳에서 눈이 열리면 그 자리를 통해 백을 알수 있어요”

살이가 정돈되지 못한 때였는데, 해인사는 비구와 대처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 다처승이 법문을 하면 비구, 특히 선방 수좌들이 법상을 들어내며 난리를 치는 광경까지 연출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 급기야는 법당을 반으로 나눠서 쓰는 웃지 못할 사태로까지 발전했으니 말이지요. 어쨌거나 해인사 강원에서 비로소 공부하는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부터 하루 한끼만 먹는 습관도 들이게 되었고, 백여명이 넘는 대중생활도 잘 해내었습니다. 군불 때는 소임을 한 절 말았다가 다음 말을 사람이 나서지 않아 석달을 더 한 적도 있었는데, '남하기 싫은 일이 내게는 공부'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조실로 계시던 효봉스님을 가까이 모

다. 여러 스님들이 재가 끝나고 현식(飯食)을 하면 날짐승들이 먹으러 왔다가 혼비백산하여 부리나케 날아가 버리는데, 인곡스님만은 날아가던 똥새들이 오려려 스님을 반가워 했어요. '우리들에게 먹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고 참새 까지 까마귀 등이 스님의 머리 어깨 등 운몸에 달라 붙는,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연출했지요. 또 나와 같이 강원에 든 한 스님이 있었는데, 별명이 '우둔 스님'이었어요. 몸 동작도 느리고 도대체 뭘 기억하는 법이 없었어요.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는데 도 반들을 따라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3년을 두고 자경문만 배워야 했지요. 한 번은 화엄만으로 오른 도반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마침 우둔스님도 거기

고 수행하다 보니 나름의 견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상묘법(實相妙法)이 본자유지(本自有之)하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오색심(吾色心)에 본래구족정정(本來俱足淸淨)하여 불생불멸불부부정(不生不滅不垢不淨)하며 부증불감대원만(不增不減大圓滿)하니 구원실성(久遠實成) 자각본화불(自覺本化佛)이로다 이때에 무수한 불보살의 현영(現影)과 오묘한 체험을 얻게 되어, 드디어 법화만다라(法華曼陀羅)를 시현(示現)하기에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사나운서가 승려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분방 3회 재방) 매주 토요일 10:20-11:10 15:30-16:20 19:10-20:00 매주 일요일 20:20-21:1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니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보세요. 기승속은 시원해지고 어제는 오뎅해드립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